# 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유가 폭등 진정에도,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일(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전쟁 종료 기대감 속 80달러대로 하락한 WTI 유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슈를 둘러싼 미 정부 관계자들의 엇갈린 발언 등이 유가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킨 여파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세 마감(다우 -0.07%, S&P500 -0.21%, 나스닥 +0.01%).

이번주 중 120달러에 근접했던 유가가 전쟁 조기 종료 기대감 등으로 고점대비 약 30% 하락하면서 80달러대에 진입한 상황. 이제 "유가의 추가 레벨 다운 -> 증시 회복 궤도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여부가 관건이지만, 아직 관련 노이즈가 잔존해있는 모습. 전일의 경우, 미 에너지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발언했으나, 백악관에서는 아직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 정부 관계자들 간 엇갈린 발언이 나온 상태. 더 나아가,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징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유가 변동성을 초래하는 요인.

당분간 유가 변동성은 상존하겠지만, 유가 안정 및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미국의 대응 의지과 실행력(해군의 선박 호위, 이란 기뢰 설치 시 제거 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유가 재폭등으로 인한 증시 급락 재출현 가능성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이처럼 중동 관련 뉴스플로우가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은 오늘 밤 발표 예정(한국 시간 밤 9시 30분)인 미국의 2월 CPI를 주시할 예정. 현재 컨센서스는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2.5%(YoY, 1월 2.4%), 2.4%(YoY, 1월 2.5%)로 지난달과 유사하게 2%대 중후반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음.

통상 2월 CPI는 3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물가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편. 이번 CPI 역시 마찬가지로, 3월 FOMC 금리동결은 기정사실화됐으나, 점도표, 경제 전망 변화를 통해 상반기 인하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Fed Watch 3월 금리동결 확률 97%, 6월 FOMC 금리인하 확률 38%).

일단 기존대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낮게 나올수록 증시에 친화적이지만, 이번 2월 CPI는 컨센을 하회하더라도 증시 상방 탄력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 유가 폭등으로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 가령, 2월 WTI 평균 가격은 64달러였지만, 3월(~10일) 평균 가격은 85달러로 2월말 대비 약 32% 상승했으며, 이 같은 유가 폭등분은 3월 CPI부터 반영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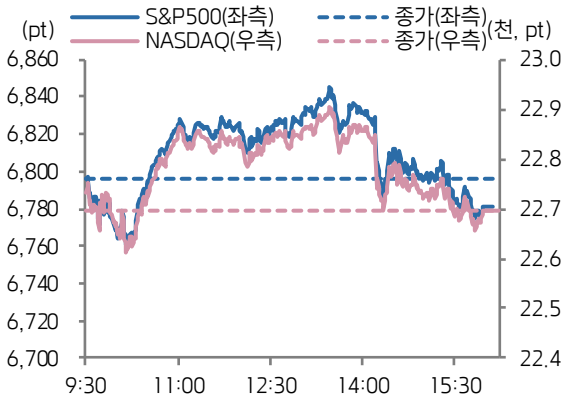
또 WTI가 이번주 119달러에서 고점을 형성한 후 빠르게 반락한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 진행형인 중동 사태발 유가 변동성이 또 한 차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임. 이는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2월 CPI를 넘어 3월 CPI를 추가로 확인하려는 심리가 짙어질 수 있음을 시사. 2월 CPI가 컨센을 하회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은 사실. 다만, "중동발 유가 급등이 만들어낸 3월 CPI 대기심리"를 감안 시, 컨센 하회 결과는 증시 급등 재료이기보다, 증시에 안도감을 부여하는 하방 경직성 강화 재료의 성격을 띨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폭락 과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속 중동 사태 불안 일부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미국 증시 반등 소식 등에 힘입어 급등하면서 직전일의 폭락분을 만회(코스피 +5.4%, 코스닥 +3.2%)

금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노이즈에 따른 미국 증시 혼조세 여파에도, 미국 마이크론(+3.5%), 샌디스크(+5.1%)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0.7%), 3월 폭락 이후 국내 증시 저가 매수 유인 지속, 삼성전자, SK 등 주요기업들의 주주환원책 발표 효과 등으로 중립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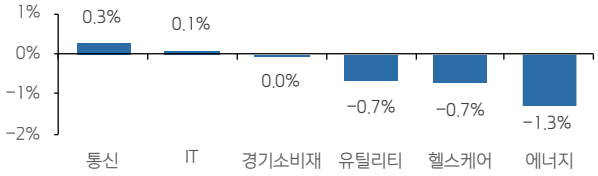
또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으며,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더욱이 오라클은 미국 AI 수익성 및 사모시장 불안의 중심에 있는 업체인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추가 채권 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관련 불안을 완화시켜준 모습. 이로 인해 현재 오라클은 시간외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 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에게 외국인 중심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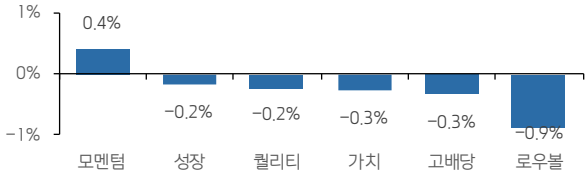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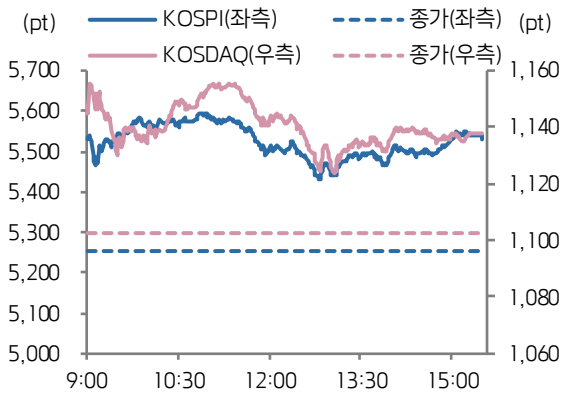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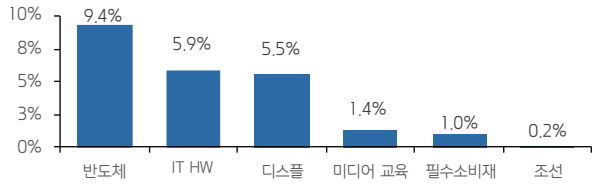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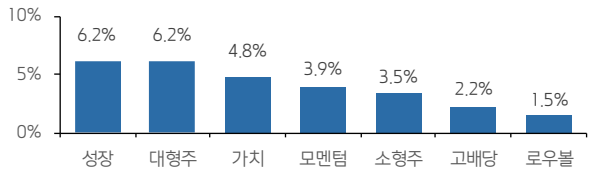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 종목 | 종가 | DTD(%) | YTD(%) | 종목 | 종가 | DTD(%) | YTD(%) |
|---|---|---|---|---|---|---|---|
| 애플 | 260.83 | +0.37% | -4.06% | GM | 74.93 | +0.32% | -7.86% |
| 마이크로소프트 | 405.76 | -0.89% | -16.1% | 일라이릴리 | 1,001.35 | -0.7% | -6.82% |
| 알파벳 | 307.04 | +0.22% | -1.9% | 월마트 | 125.12 | +0.63% | +12.31% |
| 메타 | 654.07 | +1.03% | -0.91% | JP모건 | 288.73 | -0.41% | -10.39% |
| 아마존 | 214.33 | +0.39% | -7.14% | 엑손모빌 | 148.13 | -1.54% | +23.09% |
| 테슬라 | 399.24 | +0.14% | -11.23% | 셰브론 | 186.29 | -1.66% | +22.23% |
| 엔비디아 | 184.77 | +1.16% | -0.93% | 제너럴일릭트릭 | 125.12 | +0.6% | +12.3% |
| 브로드컴 | 342.58 | -0.92% | -1.02% | 캐터필러 | 716.68 | +1.68% | +25.1% |
| AMD | 203.23 | +0.27% | -5.1% | 보잉 | 217.76 | -3.22% | +0.29% |
| 마이크론 | 403.11 | +3.54% | +41.24% | 넥스트에라 | 91.54 | -0.5% | +14%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 외환시장 | | | |
|---|---|---|---|---|---|---|---|
| 지수 | 가격 | DTD(%) | YTD(%) | 지수 | 가격 | DTD(%) | YTD(%) |
| 코스피 | 5,532.59 | +5.35% | +31.29% | USD/KRW | 1,467.50 | -0.42% | +1.95% |
| 코스피200 | 823.02 | +6.15% | +35.82% | 달러 지수 | 98.93 | -0.25% | +0.62% |
| 코스닥 | 1,137.68 | +3.21% | +22.93% | EUR/USD | 1.16 | -0.21% | -1.15% |
| 코스닥150 | 2,018.97 | +1.9% | +30.48% | USD/CNH | 6.88 | -0.12% | -1.39% |
| S&P500 | 6,781.48 | -0.21% | -0.94% | USD/JPY | 158.05 | +0.24% | +0.86% |
| NASDAQ | 22,697.10 | +0.01% | -2.34% | **채권시장** | **가격** | **DTD(bp)** | **YTD(bp)** |
| 다우 | 47,706.51 | -0.07% | -0.74% | 국고채 3년 | 3.280 | -12bp | +32.9bp |
| VIX | 24.93 | -2.24% | +66.76% | 국고채 10년 | 3.619 | -12.3bp | +23.4bp |
| 러셀2000 | 2,548.08 | -0.22% | +2.67% | 미국 국채 2년 | 3.590 | +5.4bp | +11.7bp |
| 필라. 반도체 | 7,865.12 | +0.7% | +11.04% | 미국 국채 10년 | 4.156 | +6bp | -1.1bp |
| 다우 운송 | 18,386.50 | -0.88% | +5.93% | 미국 국채 30년 | 4.790 | +7.7bp | -5.3bp |
| 상해종합 | 4,123.14 | +0.65% | +3.89% | 독일 국채 10년 | 2.836 | -2.3bp | -1.9bp |
| 항셍 H | 8,710.26 | +1.5% | -2.28% | **원자재 시장** | **가격** | **DTD(%)** | **YTD(%)** |
| 인도 SENSEX | 78,205.98 | +0.82% | -8.23% | WTI | 83.45 | -11.94% | +46.22% |
| **유럽, ETFs** | **가격** | **DTD(%)** | **YTD(%)** | 브렌트유 | 87.80 | -11.28% | +44.29% |
| Eurostoxx50 | 5,837.17 | +2.67% | +0.79% | 금 | 5,242.10 | +2.71% | +19.85% |
| MSCI 전세계 지수 | 1,024.09 | +0.8% | +0.93% | 은 | 89.08 | +6.01% | +26.17% |
| MSCI DM 지수 | 4,438.01 | +0.46% | +0.17% | 구리 | 590.40 | +1.78% | +3.91% |
| MSCI EM 지수 | 1,504.33 | +3.42% | +7.12% | BDI | 2,066.00 | +2.79% | +10.07% |
| MSCI 한국 ETF | 130.30 | -2.68% | +34.03% | 옥수수 | 452.25 | -0.33% | +0.89% |
| **디지털화폐** | **가격** | **DTD(%)** | **YTD(%)** | 밀 | 591.00 | -2.03% | +13.98% |
| 비트코인 | 70,249.52 | +1.84% | -19.85% | 대두 | 1,201.75 | +0.46% | +13.27% |
| 이더리움 | 2,042.90 | +0.82% | -31.39% | 커피 | 295.80 | -0.37% | -11.26%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3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